

성령 충만으로 힘차게 하나님의 일 하기

성경말씀: 슄4:1-10

배경 설명

이스라엘 백성의 포로 생활 (BC606년), BC 536년 고레스의 귀환 선포, 70년 포로 생활 스투바벨의 인도로 1차 귀환, BC535년 성전의 기초를 놓음(스3:8),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다의 대적들이 유다를 위협하다가 결국 아닥사스다 왕에게 편지를 보내어 공사를 중단하게 함(16년 동안). 학개와 스가랴 대언자 시대, 총독은 스투바벨, 대제사장은 예수아, BC 520년에 성전 건축 시작 BC 520년경, 다리오 왕의 통치 2년 학개는 6, 7월에 대언함, '너희가 지금 편안하게 살 때냐?'(학1:4) 스가랴는 8월(1:1)에 대언함, 다시 학개가 9월에, 스가랴가 11월(1:7)에 대언함 백성의 의심: 백성의 태도 변화, 성전 건축이 방해를 받은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결국 4년 뒤에 성전을 건축함(BC 516년) 그 당시 유다 백성은 1. 대적들에 의해 공격을 받고, 2. 세상일에 빠져서 지치고 낙심하여 3. 주님의 것을 세우는 것을 등한시 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였다. 우리는 어떤가? 예배당 지을 마음을 주셨다. 우리의 앞날(지역 교회), 구령, 선교, 교육 슄4장 주님의 격려: 하나님의 위로와 열심이 하나님의 것을 이루어 내고 만다.

등잔대와 올리브 나무들의 환상(1-3)

1절: 스가랴는 1-3장에서 4개의 환상을 보고 기력이 빠져 잠이 들었다(단10:8, 15-19).

하나님의 일, 특히 대언의 일은 하는 것은 쉽지 않다. 백성 독려 힘든 일 성막, 성소와 지성소, 베일, 향 제단(서쪽)과 등잔대(남쪽)

금 등잔대는 일곱 가지가 있었고 가지의 끝에는 등잔이 있었다(출25:31-40).

제사장의 직무는 매일 아침과 저녁에 심지를 정비하고 올리브기름을 채워서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것이다. 빛이 있어야 제사장이 성소에서 향 제단에서 향을 사를 수 있다.

2절: 그런데 여기에 나타난 등잔대는 모세의 것과 달랐다.

3절: 꼭대기에 잔이 있고 옆에 있는 두 올리브나무에서 계속해서 이 잔으로 기름이 들어갔다.

이 두 올리브 나무는 백성을 이끌고 가는 스투바벨과 예수아를 나타냈다(11-14절).

이 등잔대에는 잔에서 일곱 개의 등잔으로 기름을 운반하는 일곱 개의 관이 있었다.

즉 사람의 관리가 필요 없이 완벽하게 기름을 공급받는 등잔대의 환상이었다. 하나님의 힘으로 한다.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한다(4-7)

4-5절: 이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알기 원합니다.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그에게는 무한한 자원이 있었다. 다윗이 많은 물자 준비(대상26:20, 27-28).

그런데 지금 유다 사람들은 자원이 별로 없다.

솔로몬은 큰 권세를 가진 왕이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아무 세력도 없는 피난민이다.

"이런 상태에서 과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110억 원 프로젝트 가능할까?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는 등잔대를 보여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백성의 지도자 스투바벨에게 말씀을

주신다. 6절: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내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우리 생각과 계산으로 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 이런 공사 꿈도 꾀 적이 없다. 그러나 가능하다.

힘: 군대의 힘, 백성의 힘 그런데 이 백성에게는 군대가 없다.

능력: 개인의 힘, 스투바벨의 힘은 약해지고 있었다.

이때에 하나님은 자신의 대언자 스가랴를 통해 지도자와 백성에게 위로를 주신다.

스4:6, 학2:4-5, 내 영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느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두 가지 방법: 1. 내 힘과 지혜로, 2. 하나님의 힘으로

내 것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 그 행위가 다 불타서 없어지는 지푸라기이다(고전3:12-15).

지금 유다 사람들에게는 힘이 없다. 자원이 없다. 그러므로 성전을 짓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게 보였다.

7절: 그래서 큰 산처럼 보였다.

7절: 하나님의 약속, 그런데 그 큰 산이 스룹바벨 앞에서 평야가 된다.

예수님의 말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마17:20; 21:21).

스룹바벨 앞의 큰 산:

1. 마귀와 그의 군대들의 계략(슌3:1), 2. 사방의 대적들, 3. 지친 백성들, 4. 수확이 부족함,
5. 경제가 좋지 않음, 6. 하나님의 백성이 순종하지 않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성령 충만(6절)

초대 교회 성도들은 어려움을 겪으면 기도로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구했다(행4:23-31).

우리도 여름 기도회: 성령 충만, 대내외 문제 해결, 아픈 사람들

우리의 문제: 근본주의자, 성경 무오성, 그런 성경 존재 확신, 성경대로 사는 성경 신자

1. 수가 많지 않다, 2. 재정이 부족하다, 3. 멀리 산다, 4. 열의가 부족하다. 5. 영혼의 자유(질서가 없다), 6. 사역을 방해하는 마귀, 그의 세력

주님의 말씀: 1.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내 영으로 되느니라”(4:6).

2.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평야가 되리라(7).

개인적인 문제들 역시 주님이 해결하신다. 4:6, 7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끝내신다(7-10).

하나님의 약속: 내가 성전을 짓고 만다. 내 열심이 이 일을 이룬다.

7절: 그가 그것의 머릿돌을 내놓는다. 건물이 완공된다.

백성들이 지도자와 함께 ‘은혜가 그 돌에 있을지어다’라고 소리를 지른다. 우리에게도 이 날이 온다.

9절에서 확증의 말씀을 주신다.

빌1:6, 대상28:20

10절: 작은 일들의 날을 멸시하지 말라.

귀환 후 성전을 짓는 일은 솔로몬 성전 공사와 비교하면 작은 일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지 않았다. 우리의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끝내신다.

성경은 작은 일들의 기록이다.

아기 모세의 눈물로 출애굽을 시작하셨다.

아이 다윗으로 주님의 왕정을 시작하셨다.

말기유에 나신 아기 예수님으로 구원을 이루셨다.

작은 아이의 도시락으로 5000명을 먹이셨다.

당신은 지금 주님을 위해 어떤 작은 일을 하고 있는가? ★★★ 빌2:13

하나님은 백성에게 성령 충만을 주셨다. 작은 일들이 큰 일이 된다.

10절: 백성들은 스룹바벨이 다림줄을 가진 것을 보았다. 수평이나 수직을 헤아려보는 일

그는 모든 것을 바르게 처리하였다.

스룹바벨과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일할 때에 하나님의 일곱 눈이 온 땅에서 그들을 지켜 주시고 보호하신다.

결론

이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서창 예배당 건축 시작

작은 힘이 모여 주님의 일을 한다. 6, 7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지쳤는가?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인생 문제들로 힘든가, 주님을 의지하라. 사람의 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 충만으로 된다.